

뉴미디어 시대 한, 중 전통서사의 문화변용
- 한국 TV드라마 <계룡선녀전>에서의 전통서사전유와
한국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융합인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최진아

1. 발표 요지

상호성, 수평성을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문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매체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문학의 의미 역시 이전과 다른 정립이 필요하고 대학의 인문학 교육방안도 재구성해야 하는 임무가 요구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바, 본 발표는 다음의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전통서사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된 한국 TV드라마에 주목한다. 특히 한국에서 제작되어 한국과 중국에서 공유된 TV 드라마인 <계룡선녀전>을 중심으로 한, 중의 전통서사가 현대 문화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유된 모습을 고찰한다. 그 결과 한, 중 전통서사에 기초한 이 드라마는 서사구조에 있어서 ‘人神戀愛’, ‘才子佳人’이라는 중국 전통서사구조를 변용하였고 내용상에 있어서는 한국적 모티프를 차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본 발표에서는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진행되는 캡스톤 디자인 융합인문학 교육의 의미와 실례에 대해 설명한다. 본래 공학의 개념인 캡스톤 디자인은 인문학에 적용되어 융합인문학이라는 새로운 교육개념을 생성한다. 즉, 한국과 중국의 전통서사에 근간하여 공학, 경영학 등과의 융합 속에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전통서사 기반의 웹툰, AR방식의 게임, 상품 등 실제 대학 교육현장의 산출물을 예시로 들어 뉴미디어 시대의 전통서사가 텍스트로서 뿐 아니라 콘텐츠로서 적극 활용됨을 증명하고 나아가 인문적 가치의 확장을 전망하고자 한다.

2. 한국 TV드라마 <계룡선녀전>에서의 전통서사전유

(1) 뉴미디어 시대의 인신연애서사 <계룡선녀전>

흰 수염을 휘날리는 신선 이야기, 그리고 나비모양의 머리에 날개옷을 걸친 선녀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신선과 선녀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뉴미디어¹⁾ 시대의 신선과 선녀는 그 초월적 능력은 그대로이지만, 21세기의 외피를 입으며 재생산된다.

2018년 네이버 웹툰으로 연재완료 되고 곧이어 공중파 방송인 tvN에서 드라마로 방영된 ‘계룡선녀전’의 여성주인공인 선옥남은 699년 동안 계룡산에서 나뭇꾼의 환생을 기다려 온 선녀이다. 그녀는 다방을 운영하는 바리스타로 직접 커피콩을 키우고 커피를 만든다. 그러던 어느날, 정이현과 김금이라는 두 남성이 선녀다방에 나타난다. 하지만 전생의 기억이 불확실한 선옥남은 정이현과 김금 가운데 누가 전생의 나뭇꾼이었던 그녀의 남편인지 알 수가 없

1) 뉴미디어는 정보 전달에 사용하는 매체 중 옛부터 사용되고 있는 신문이나 지상파 텔레비전 이외에 최근에 와서 급속히 보급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총칭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웹툰과 CATV(공중파 케이블 텔레비전)의 드라마는 포괄적 의미의 뉴미디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 이에 선옥남은 나뭇꾼이었던 전생의 남편을 확인하고 찾아내기 위해 정이현과 김금의 뒤를 따라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간다.

웹툰과 드라마의 내용이 거의 동일²⁾한 ‘계룡선녀전’은 중국 위진 시기의 《列仙傳》, 당나라 傳奇의 인신연애 유형과 한국의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를 융합적으로 전유한 작품이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서사의 소비자는 전통적인 서사의 구조에 변화를 기획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남녀주인공의 특징이 역전되거나 혹은 결말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난다.

(2) <계룡선녀전>에 투영된 중국전통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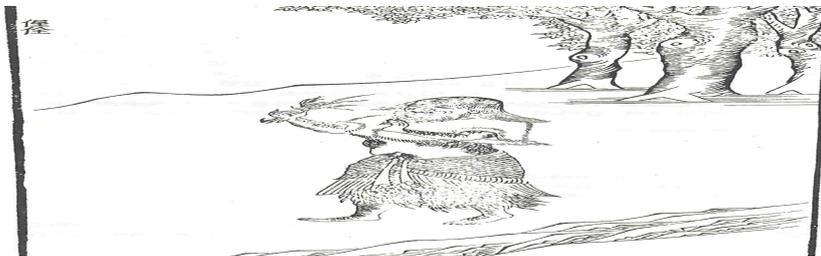
1) 약초를 다루는 신선과 바리스타 선녀

<계룡선녀전>에서 선녀 선옥남의 직업은 커피바리스타이다. 그녀는 계룡산에서 커피콩을 직접 키우며 다방을 운영한다. 선녀 선옥남의 손길을 받은 커피콩은 마치 약초와도 같은 효능이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커피콩 같은 식물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며, 커피콩 하나 하나의 특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서 특별한 치유의 커피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가 만든 커피를 마시면 신체의 병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선녀 선옥남의 모습은 위진 시기의 《열선전》에 등장하는 약초를 키우고 치병을 행하던 신선의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약전은 괴산의 약초 캐는 노인이다. 소나무 열매를 먹기 좋아했는데,,,,,당시 사람 가운데 그것을 받아 복용한 자는 모두 2백 살에서 3백 살까지 살았다. (僿侏者, 槐山採藥父也. 好食松實.....時人受服者, 皆至二三百歲焉.)

최문자는 태산사람이다.....노란 가루약을 차고서 병든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녔는데 가루약을 먹은 자는 그 자리에서 나왔다. (崔文子者, 太山人也.....繫黃散, 以徇人門, 飲散者即愈.)

《열선전》에 등장하는 위의 仙人들은 모두 약초를 다루는 능력을 지녔다. 그들은 약초를 복용하거나 남에게 복용하도록 권한다. 또한 선인들은 스스로 제조한 약을 통해 다른 이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보인다. 이는 <계룡선녀전>에서 선옥남이 만들어 준 커피를 먹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고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힘든 과제를 단숨에 수행하게 되는 맥락과 상통한다. 《열선전》의 약초가 ‘계룡선녀전’의 커피로 치환되었을 뿐이다.



2) <계룡선녀전>과 같이 웹툰을 근거로 드라마화한 경우는 웹툰 자체의 대중성이 기 확보 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콘텐츠가 지닌 후광효과, 수익의 극대화를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룡선녀전>의 경우는 스토리의 변화가 거의 없고 매체의 변화만 존재하는, 성공적인 OSMU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웹툰 기반의 드라마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함. 이승형, 〈웹툰의 매체변환 과정에서의 협업체계연구〉,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커뮤니케이션 학과 석사논문, 2019. p.18.



<《열선전》의 약초를 다루는 신선 약전과 <계룡선녀전>의 선녀 바리스타 >

그런데 <계룡선녀전>에 등장하는 신선의 치유능력은 위진 시기의 《열선전》에서 뿐 아니라 당나라 傳奇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예를 들어 裴鏞의 《傳奇》의 <崔煒> 이야기에서는 鮑姑 선녀의 땀 뜨는 쑥이 등장한다. 葛洪의 아내인 포고는 남해에서 쑥을 채취하여 사람들에게 땀을 떠주고 병을 고쳐주었다고 한다. 또한 같은 책의 <樊夫人> 이야기에서도 백성의 병을 치료해주는 선녀의 이야기가 나타난다. 劉綱의 아내인 번부인은 뛰어난 도술로 洞庭湖의 괴물을 퇴치하고 부적을 써서 아픈 백성을 낫게 해 준다.³⁾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당나라 전기에서는 仙人이 지닌 약초와 치병의 능력이 남성 신선 보다는 여성 신선, 즉 선녀의 특성으로 서술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위진 시기 《열선전》의 선인 가운데 선녀가 약초를 다루고 치병을 행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에 비해 당나라 전기로 들어 오면 이같은 치료의 행위가 선녀의 능력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기가 성립된 당나라의 시대문화적 상황과 연관하다. 당나라는 중국의 전통왕조 가운데 여성의 활동범위가 비교적 넓었고 이는 여성 신격에 대한 숭배, 나아가 선녀 이미지에 대한 강화현상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선녀의 이미지는 용모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만인을 보살피는 덕성을 지니고 병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는 현 시기 웹툰과 드라마로 재생산된 <계룡선녀전>의 선녀 바리스타로 재현된 것이다.

2) 당나라 傳奇의 人神戀愛 유형과 ‘계룡선녀전’

초월적 존재인 선녀와 인간 남성과의 연애 이야기는 당나라 전기에서 인신연애라는 부류로 유형화되는 서사이다. 본래 인신연애 유형에서 남성주인공은 대부분 왕의 신분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를수록 점차 도술을 연마하는 사람, 혹은 신선의 기질이 내재되어있거나, 전생애 신선이었던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즉 <계룡선녀전>에서 남성주인공의 신분이 전생애 선계의 신선이었다는 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서사의 맥락과 같다. 당나라 전기에서의 인신연애는 대부분 그 결과가 남녀 주인공의 득선으로 귀결된다. 선녀 신분인 여성과의 연애를 통해 인간 남성은 신선에 해당하는 지위를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세상을 버리고 선녀가 속한 세상으로 떠나서 천상의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주인공의 선계 편입 이유에 대해서는 당나라 시기, 세력있는 가문의 여성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사위가 되고 싶어하는 당시 남성들의 욕망이 서사에 투영되어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고찰된 바 있다.⁴⁾ 그러나 <계룡선녀전>의 경우 남성주인공의 선계 편입에 대해서는 웹툰과 드라마 둘다

3) 배형 지음, 최진아 옮기고 풀어씀, 《전기- 초월과 환상, 서른한 편의 기이한 이야기》, 서울: 푸른숲, 2006.

4) 인신연애와 남성주인공의 선계 편입에 대한 당시 사회적 맥락은 다음 연구를 참조. 梅新林, 《仙話 - 神人之間的 魔幻世界》, 上海: 三聯書店, 1992, 李豊楸, 《誤入與謫降》, 臺北: 學生書局, 1996.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계룡선녀전>에서는 당나라 전기에 비해 연애 그 자체에 보다 치중된 형태를 보이며 선녀 선옥남과 두 남성, 즉 김금, 정이현 사이의 감정과 이야기를 통해 서사를 전개시키고 있다. 다만 남성주인공의 신분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부분은 <계룡선녀전>과 당나라 전기가 동일한 형태를 나타낸다. <계룡선녀전>의 두 남성주인공인 김금과 정이현은 현생에는 연구원과 대학교수이지만 전생에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선계의 신선인 파군성과 거문성이었고 탐랑성인 선녀 선옥남과 절친한 관계였다. 선계에서 파군성 김금과 탐랑성 선옥남은 서로 애정을 품고 있었고 거문성 정이현 역시 탐랑성 선옥남을 짝 사랑하였다. 그러나 파군성과 거문성은 仙官의 심판으로 인간세상으로 내려가는 벌을 받게 되며 그들은 謫降한 신선으로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된다. 파군성은 나뭇꾼의 전생을 거쳐 연구원이 되고 거문성은 사슴의 전생을 거쳐 대학교수가 되는 현실 속에서 파군성 김금과 거문성 정이현은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 계룡산 선녀탕으로 들어가게 된다. 두 명의 남성주인공이 선녀탕, 즉 선계라는 신이한 공간으로 진입하는 과정과 경로는 어느 순간 우연하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는 당나라 전기의 인신연애 유형에서 보여지는 선계 진입 서사의 변용에 해당한다. 당나라 전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계를 바위산, 깊은 골짜기, 계곡, 복숭아꽃 등의 이미지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깊은 골짜기가 걸쳐져 있는 모습은 마치 벼랑에 구멍을 뚫은 것 같고,
 높은 봉우리가 하늘을 가로지른 형국은 칼로 절벽을 깎아낸 듯하구나.....
 잠깐 사이에 소나무, 잣나무 바위에 이르고,
 복숭아꽃 핀 계곡물에 향그런 바람은 땅을 어루만지니,
 그 광채가 온 세상에 고루 미치는구나.

(深谷帶地, 鑿穿崖崖之形, 高嶺橫天, 刀削崗巒之勢.....須臾之間, 忽至松柏巖, 桃花澗, 香風觸地, 光彩遍天.)⁵⁾

이처럼 깊은 골짜기와 칼로 깎아낸 듯한 절벽을 통과할 수 있는 선택된 인간만이 선계로 들어갈 수 있듯이 <계룡선녀전>의 두 남성주인공 또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선녀탕으로 진입한다. 그런데 <계룡선녀전>의 남성주인공들이 선녀탕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조건은 그들이 전생에 선계의 신선인 파군성과 거문성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도교설화에 의하면 斗姆라는 여신이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 貪狼, 巨門, 祿存, 文曲, 廉貞, 武曲, 破軍의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한다.⁶⁾ 즉 ‘계룡선녀전’의 남성주인공들의 이름은 도교설화 속 별자리 이름을 변용한 것이고 이는 서사 속에서 남성주인공들이 비범한 신분임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3) 신선의 乘物과 선녀의 복숭아

호랑이는 신선과 친연성을 지닌 존재로 흔히 신선의 곁을 지키거나 신선이 타고 다니는 존재로 묘사된다. 《열선전》의 신선 가운데 彭祖는 좌우에 호랑이를 거느린 신선으로 그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는 항상 호랑이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는 호랑이가 지닌 靈物로서의 특성이 초월적 존재인 신선의 특성과 연동된 것이다. <계룡선녀전>에서도

5) 曹小雲 著, 《日藏慶安本〈遊仙窟〉校注》, 合肥: 黃山書社, 2014, pp.5-9.

6) 詹石窗, 《여성과 도교》, 서울: 여강, 1993, p.97.

역시 호랑이가 등장한다. 그런데 <계룡선녀전>의 호랑이는 본질은 호랑이지만 수련이 덜 되어 대부분 고양이의 모습인, 항상 여주인공 선옥남의 곁을 지키는 그녀의 딸로 나타난다.

호랑이 보다 더욱 신선과 연계성이 깊은 신선의 乘物은 용이다. 《열선전》에서는 〈馬師皇〉, 〈黃帝〉등의 조항에서 신선이 용을 타고 승천하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신선은 용을 기르거나 치료하거나 혹은 물고기를 키워 용으로 만드는 등, 자유자재로 용을 부린다. 이처럼 선계와 가까운 동물인 용은 <계룡선녀전>에서는 선녀 선옥남과 나뭇꾼 김금의 아들로 등장한다. 용은 돌 안에서 갇혀 환생을 기다리다가 개불의 모습으로 태어나 아버지 김금을 알아본다. 이후 용의 모습으로 변신한 뒤, 거문성이 선녀탕에 일으킨 큰 불을 제압하기 위해 비구름을 불러낸다.



<웹툰 <계룡선녀전>의 호랑이 딸과 용 아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신선의 승물이었던 호랑이와 용은 웹툰과 드라마에서는 선녀의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신선의 곁을 지키는 호랑이라는 원래의 모습과 비구름을 불러내며 신선을 태우고 다니는 용의 특성을 지닌 채 새로운 서사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계룡선녀전>에서 중국전통서사를 변용한 또다른 부분으로는 웹툰과 드라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복숭아’라는 모티프이다. <계룡선녀전>에서 복숭아는 선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며 선녀가 병을 얻었을 때에도 복숭아를 먹으면 치유된다고 설명한다. 그 뿐 아니라 선녀 선옥남이 목욕하는 선녀탕도 복숭아 꽃이 만발한 계곡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숭아의 모티프는 중국 전통서사와 연관이 깊다. 신화 속 여신인 西王母는 한번 먹으면 3천년을 살 수 있는 복숭아 발, 즉 蟠桃園의 주인이다. 또한 《열선전》의 〈葛由〉에서도 신선 갈유를 따라간 사람들이 모두 仙桃를 얻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전통서사 속 복숭아의 모티프는 현대 뉴미디어 서사인 <계룡선녀전>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전통서사와 <계룡선녀전>의 콘텐츠

지금까지 뉴미디어적으로 재생산된 <계룡선녀전>의 구조와 내용에 중국전통서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투영되었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런데 <계룡선녀전>에는 중국전통서사 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서사 또한 그 구조와 내용의 형성에 개입되고 있다.

1) 계룡산과 선계의 공간

<계룡선녀전>에서 선녀 선옥남이 커피를 팔던 다방, 그리고 복숭아 꽃이 핀 別世界인 선녀탕은 모두 계룡산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웹툰과 드라마에서 모두 계룡산은 신선과 선녀의 거주 공간이며 인간세상과 선계를 연계시켜주는 지점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계룡

산이라는 특별한 공간의 콘텐츠는 과연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

본래 계룡산은 조선 건국시기 도읍지 후보 중 하나였으며 조선 시기 내내 《鄭鑑錄》과 같은 예언, 참위서에서 眞人이 나와 새 왕조를 창업한다는 주장에 언급되었던 곳이다. 이에 계룡산에 대한 고래로부터의 관념은 계룡산을 수많은 신선, 도술 이야기의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설정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계룡선녀전>의 경우, 선녀 선옥남과 동료 신선들은 몇 백년이 지나도록 계룡산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계룡산 바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사는 곳에서 행복을 누린다. 이는 마치 전란을 피해서 桃花源에 살게 된 백성들이 외부에서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과도 유사하다. 그만큼 선옥남과 동료 신선들이 지내는 계룡산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안정된 공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선녀와 나무꾼' 설화와 <계룡선녀전>

뉴미디어 서사인 <계룡선녀전>의 구조와 내용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서사는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 설화이다. 이 이야기는 <계룡선녀전>의 선녀 선옥남, 나무꾼 바우새와 거문성의 환생인 사슴,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사이의 자녀라는 인물 설정에 기반이 되며 새로운 구조로 재생산된다.

전생에 선계의 파군성이었던 나무꾼 바우새는 역시 선계의 거문성이었던 사슴이 계략으로 선녀탕에 내려온 탐랑성 선옥남의 옷을 훔친다. 이에 옷이 없어져 선계로 가지 못한 탐랑성은 전생의 연인인 파군성을 알아보고 그들은 곧 결혼하여 두 아이를 키운다. 그러나 전생에 탐랑성을 사모하던 사슴, 즉 거문성은 나무꾼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다 결국 나무꾼 바우새를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만든다. 과부가 된 탐랑성 선옥남은 다시 환생하게 될 파군성 나무꾼 바우새를 계룡산에서 기다리며 세월을 보낸다. 이와 같이 뉴미디어 서사 <계룡선녀전>에서 달라진 점은 설화에서 조력자에 불과했던 사슴이 <계룡선녀전>에서는 적극적으로 서사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설화에서의 사슴은 보은의 행위로 나무꾼을 선녀에게 인도한다. 하지만 <계룡선녀전>에서의 사슴은 전혀 다르다. 사슴의 전생은 신선인 거문성이었고, 거문성은 선녀 탐랑성을 흠모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사구조의 변화는 <계룡선녀전>이 독자에게 익숙한 '선녀와 나무꾼' 설화를 이용하여 다가서기를 시도한 다음, 변화된 구조로써 낯선 느낌을 제시하는 것이다.⁷⁾ <계룡선녀전>의 결말 구조 역시 단순한 인신연애 유형의 설화에서 더 나아간다. 선녀와 나무꾼 설화는 두 명의 자녀를 양팔에 안은 선녀가 날개옷을 찾아입고 승천한다. 나무꾼은 인간세상에서 선녀를 그리워하고 선계로 가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다. 따라서 선녀의 세상과 나무꾼의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계룡선녀전>의 결말은 상이하다. 선녀는 두 명의 자녀를 데리고 선계로 승천하지 않고 혼자 떠난다. 선녀의 자녀는 인간세상에 남아 있고 선녀의 남편인 파군성은 자신의 일을 하며 선녀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즉 선녀는 선계와 인간계를 오가고 인간남성은 지조를 지키며 선녀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는 당나라 전기의 인신연애 유형과 한국 설화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계를 더

7) 전통서사의 현대적 스토리텔링 과정에서의 '익숙하게 하기'와 '낯설게 하기' 기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최진아, <도깨비의 귀환: 드라마 '도깨비'에 내재한 한, 중 전통괴담서사의 원리>, 《중국문학연구》, 한국중문학회, 제67집, 2017.

중요시한 구조와는 변별된다. <계룡선녀전>에서는 선녀의 세상과 나무꾼의 세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선계와 인간계의 합일과 소통을 이루는 것이다.

(4) 뉴미디어 시대 인신연애서사의 변화

그렇다면 전통적인 인신연애서사에 비해 뉴미디어 시대 인신연애서사에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신연애서사의 향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중국전통서사의 생산자는 대부분 문자를 운용할 줄 아는 남성이었고 독자 역시 같은 계층의 남성이었다. 그러나 뉴미디어 시대 인신연애서사의 생산자는 더 이상 남성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또한 뉴미디어 인신연애서사는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즉각적이고도 쌍방향적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웹툰의 작가, 공중파 드라마의 제작자는 뉴미디어 인신연애서사의 독자, 즉 소비자의 반응에 실시간으로 집중하며 서사의 전개를 기획하게 된다. 오직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고 살펴야만 뉴미디어 서사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할머니 선녀와 젊은 남성의 사랑

뉴미디어 서사의 주된 소비자는 여성이거나 여성의 취향과 큰 차이가 없는, 젊은 남성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각과 경향성은 전통서사에서와는 전혀 다른, 뉴미디어 서사의 논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 전통 인신연애서사에서 남녀 주인공은 才子와 佳人의 유형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결코 선녀의 외모가 추하다거나 혹은 선녀의 나이가 많다는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뉴미디어 시대 서사는 그 소비자가 달라져 버렸다. 여성, 혹은 여성취향이 중심이 된 뉴미디어 시대의 인신연애서사는 우월한 선녀의 존재를 당연시한다. 게다가 여성주인공인 선녀의 외모와 나이에다 변화를 일으킨다. 전통적인 서사에서 선녀는 ‘이슬에 아름다운 꽃향기가 배어 있듯, 봄눈 녹은 빛인 듯하며, 옥보다 흰 얼굴에 짙은 구름 같은 귀밑머리(露’裒環英, 春融雪彩, 臉欺膩玉, 鬢若濃雲)⁸⁾를 지닌 것으로 묘사됨에 비해 뉴미디어 서사 <계룡선녀전>의 여성주인공 선옥남은 주름살 투성이의 나이 든 할머니로 등장한다. 할머니의 모습인 여성주인공 선옥남은 계룡산 선녀다방과 남성주인공들이 있는 학교의 카페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다만 여성주인공 선옥남이 선녀임을 알아보는 경우에만 할머니는 젊은 아가씨의 모습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할머니의 외모로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그녀가 선녀임을 모르는 일반적인 경우, 겉으로 보기에 할머니가 주도적으로 젊고 재능있는 두 남성을 거느리고 연애를 하는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여성주인공의 연령설정은 뉴미디어 시대 서사의 소비자가 지닌 여성주체적인 경향성을 확실히 제시한다. 나아가 <계룡선녀전>의 결말에서 보여지듯이 여성주인공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성주인공과 자녀를 위해 자신의 영역을 포기하고 인간세상에서 헌신하지 않는다. 여성주인공은 자유롭게 선계와 인간계를 오가고 남성주인공은 그러한 여성주인공이 인간계에 다시 오는 날을 기다리며 지낸다. 이와 같은 뉴미디어 서사에서의 남녀주인공의 모습은 전통적인 인신연애서사에서는 전혀 시도된 바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

8) 배형 지음, 최진아 옮기고 풀어씀, <裴航>, 《전기- 초월과 환상, 서러운 편의 기이한 이야기》, 서울: 푸른숲, 2006.



<드라마 <계룡선녀전>의 할머니 선녀와 젊은 선녀>

3. 캡스톤 디자인과 뉴미디어 시대의 융합인문학 교육

지금까지 분석한 한국 TV 드라마에서의 실례 뿐 아니라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융합인문학 교육을 통해 한, 중 전통서사의 현대적 변용은 제시된다.

(1) 캡스톤 디자인과 한, 중 전통서사기반의 인문학 교육

‘캡스톤 디자인’이란 본래 공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창의적 종합설계’라고도 한다. 즉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학에서 비롯한 개념인 캡스톤 디자인 방법론을 대학의 인문학 수업에 도입하여 ‘문제 제기’, ‘기획’, ‘설계’, ‘개발’, ‘생산’의 단계를 통해 융합인문학 교육을 시행할 수가 있다. 특히 인문학 교육에 캡스톤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할 때, 한국과 중국의 전통서사를 근간으로 산출물을 내는 수업은 다양한 융합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한, 중 전통서사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교수의 지도 하에 문화 콘텐츠를 도출해 내는 수업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는 한, 중 전통서사를 바탕으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다양한 융합적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캡스톤 디자인과 한, 중 전통서사기반의 인문학 교육 예시

다음의 예시들은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으로부터 산출된 성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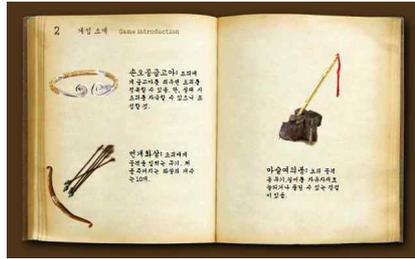
1) 중국전통서사 <고경기(古鏡記)>를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

뉴미디어 서사의 주요 장르 가운데 하나인 웹툰을 신비한 거울의 정령과 인연에 대한 중국 전통서사를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QR코드에서는 웹툰 내용의 한 부분을 담았다.



2) 《서유기》콘텐츠와 AR기술을 융합한 방탈출 게임의 소개서

《서유기》를 콘텐츠로 활용하여 AR방식의 방탈출 게임을 제작한 것이다. 방탈출 게임의 룰은 QR코드의 형태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산출물은 중국전통서사를 근간으로 공학의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 낸 융합의 결과물에 해당한다.



3) 붉은 실로 남녀의 인연을 묶어 점지하는 월하노인(月下老人) 이야기에 근간한 커플 향수 중국전통서사 《속현괴록(續玄怪錄)》〈정혼점(定婚店)〉을 이용하여 제작한 향수 및 커플 팔찌이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전통서사에서 출발하였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드라마 ‘신사의 품격’,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등에서 동일한 모티프를 변용한 바 있다. 위의 산출물에서는 〈정혼점〉에 등장하는 月下老人의 붉은 실은 팔찌로 변용하였고 인연을 이어준다는 의미인 련위안(連緣)으로 향수의 네이밍을 하였다. 월하노인 이야기는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문화인 바, 전통서사에 기반한 상품의 제작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대상 전체를 포괄하는 가능성을 지닌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계룡선녀전> 및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 속에서 한, 중 전통서사를 적극적으로 전유, 재생산한 사례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현시기 인문학은 뉴미디어를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뉴미디어 시대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 오히려 한, 중 전통서사 근간의 문화변용은 뉴미디어라는 탈국가적, 탈공간적 도구를 통해 21세기를 주도하는 인문학적 의미와 영역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유향 지음, 김장환 옮김, 《중국 도교의 70仙人이야기-열선전》, 서울: 예문서원, 1996.
 李劍國, 《唐五代志怪傳奇敘錄》,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3.
 김의정, 〈시는 어떻게 광고가 되는가 - 중국 고전시의 문학콘텐츠 활용방안〉, 《중국어문학지》, 중국어문학회, 제42집, 2013.
 최진아, 〈중국소설 과목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과 학술적 가치에 대한 연구〉, 《중국소설논총》, 한국중국소설학회, 제52호, 2017.
 하경숙, 〈설화 선녀와 나무꾼의 형성과 전승양상〉, 《동방학》,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제39권,

2018.

허혜정, 〈뉴미디어 스토리텔링과 웹컨텐츠의 가능지평〉, 《국제한인문학연구》, 국제한인문학학회, 제20권, 2017.